



지역 모임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지도자들

## 광주 방문자 센터 수리 완료

지난 5월 15일 광주 방문자 센터가 6개월만에 다시 개관되었다. 오후 8시 30분에 열린 개관식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국 부산 선교부장단과 광주시의 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본 센터의 개관으로 광주 선교사들의 활동이 한층 활기를 띠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는 우주의 그림, 예언자들의 사진 및 소개의 글, 숲 속에서 기도하는 요셉 스미스의 모습, 물문경에 관한 해설판, 고대의 태양력과 피라미드의 모형, 세계와 그리스도에 관한 큰 그림과, 성경과 물문경에 관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 부산 선교부, 경주 개척

지난 4월 27일, 댄 피터슨, 최 승국, 더글러스 드프리, 롤런 나이 장로 등 4명의 선교사가 신라의 고도 경주 땅에 첫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들은 시청에 문의하여 3시간 만에 훌륭한 숙소를 구하게 되었고 그날로 은행 계정을 설정하고 사서함을 설치했다.

이들은 곧 선교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유신 장군의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경주시를 선교지로 헌납한 후 곧 경주 시내의 의사, 사업가, 기타 이름을 소개받은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경주 시민이 선교사에 대해 갖는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보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 시내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주에 있는 회원은 12년 전에 대구에서 침례받은 김 영미 자매 뿐이지만 현재의 선교 활동은 극히 고무적으로 의사, 교사, 전도사, 사업가, 경찰관 기타 많은 시민들이 선교사와 함께 복음 공부를 하고 있어 머지 않아 이 아름다운 옛 문화의 도시 경주에 하나님의 회복된 복음의 꽃이 만개할 것이 기대된다.

## 6월 지역 모임

지난 6월 12일 토요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신학 연구원과 제9와드 예배당에서 1976년도 지역 모임이 개최되었다. 앤드러스 지역 대표가 감리한 이 모임에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선교부, 부산 선교부의 신권 지도자와 역원을 비롯해서 와드 감독단, 서울 선교부와 부산 선교부 산하의 지방부장단과 지부장단, 신권 및 보조 조직 역원 등 300여명의 역원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지역 모임은 종전에는 매년 2회에 걸쳐 가졌으나 금년부터는 매년 1회씩 갖게 되었다.

앤드러스 지역 대표는 전체 모임에서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역원들에게 첫째, 경전 공부, 둘째, 가정의 밤, 셋째, 신전 사업(계보 사업), 넷째,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앤드러스 지역 대표는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과 매주 섬찬식에 가족과 함께 참석할 것을 약속하는 즉석 접견을 갖고 다른 역원들도 이와 같은 접견을 회원과 갖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앤드러스 대표는 동경 신전 건립을 위해 모든 회원이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셨다. 지역 대표의 말씀을 듣고 역원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며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전체 모임에서 조 신환 형제(제9와드)는 개종 후의 축복에 대해서, 최 인빈 형제는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의 가치에 대해서, 각기 훌륭한 간증을 전했다.

전체 모임 후에 각 조직별로 분반하여 역원들은 교회 각 보조 조직의 1977~78년도 연례 지침 등 매우 중요한 지시와 가르침을 받았다.

모든 역원은 지역 모임을 준비하느라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울 스테이크 부장과 모든 역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도 지역 모임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 아이다호주 전역을 휩쓴 테톤 댐 붕괴 홍수

지난 6월 5일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발생한 테톤 댐 붕괴 사고로 약 4만명이 집을 잃게 되었는데 이들 중 90%가 몰몬이었다.

댐이 붕괴되자 댐에 저장되었던 물이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려 슈가, 살렘, 히바드 시를 십시간에 휩쓸어버렸다.

이 성난 물결은 여러 도시를 강타하며 흘러내리다가 계곡 하류에 있는 어메리칸 폴 댐에 이르러서야 그 기세가 꺾였다.

6월 8일 현재 사망자 수는 8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산 피해 액은 수십억불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국은 이 엄청난 재난에 비해 사망자 수가 극히 적은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교회와 시당국 적십자사의 구조 본부로 지정된 리스 대학에 수용되었다. 대학 구내에 세워진 대책 본부는 이재민들의 즉각적인 구호를 논의하였다.

6일 일요일 아침 8시에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 이곳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일요일 오전 10시에 렉스버그 아이다호와 아이다호 노스 스테이크가 대학 구내에서 합동 모임을 가졌는데,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란 찬송으로 시작된 이 모임이 끝난 후 렉스버그 아이다호 스테이크 부장인 마크 지 리스 형제는 구호의 손길을 보내온 조직이 많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가 되어 일을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과 기타 총관리 역원은 6월 5일 아이다호 렉스버그의 재난 소식을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아이다호 렉스버그의 댐 붕괴 사고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우리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잃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입니다.

“댐의 붕괴 소식을 들은 직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과 교회 본부 복지 담당 지도자들은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급 용도품은 물론 수많은 담요와 기타 침구가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번역 출판부로부터 트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도품은 교회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지역에서 재난을 입지 않은 수천의 말일성도 가정이 집을 잃은 자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우리는 이미 설정된 교회의 지침에 따라 구조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지역 복지 위원회 회장인 렉스버그의 마크 지 리스 형제의 지시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직접 리스대학의 이재민 구조 본부를 방문하여 특별 모임을 갖고 약 8천명의 재난에 시달린 교회 회원들에게 격려와 권고의 말씀을 했다.

이 모임에서 김볼 대관장님 외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며 아이다호 지역 고문인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의 말씀도 있었다. 그들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물질적인 것을 송두리채 잃어버리고 실의에 찬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는 이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집을 다시 지을 때 여러분의 삶도 다시 구축하십시오.”라는 의미 심장한 말씀을 하였다.

또한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가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볼 대관장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그의 말대로 행한다면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가정 생활을 보다 뜻깊게 해 줄 것이며 이제까지 육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대관장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밤과 아침에 가족 기도를 가질 것과 식사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볼 대관장님께서는 회원들에게 스케어 댄스와 같은 사고 모임을 자주 가져 “사기를 복돋우도록”이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관장님은 이 재난이 “진정한 힘과 용기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다.

댐의 붕괴 원인은 당국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있다.

다음 페이지의 관계 사진 참조

## 대관장단 메시지

# 결혼 결정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974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  
지역 대회에서 하신 말씀

이제 여러분을 대하여 또 여러분이 힘차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 넓은 토지도, 호화찬란한 주택도, 번쩍이는 보석도, 세속적인 사람들의 칭찬도, 이 세상의 재물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위대한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바란 것,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혜로운 아들이 전성기를 맞아 스스로에게 바란 바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부친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대상 29 : 19).

이제 전반적으로 결혼과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 : 24)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 : 28). 따라서 정상적인 모든 남자와 정상적인 모든 여자



를 위한 프로그램이 그들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정상적인 모든 남자가 동반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바라십니다.

최근에 나는 35세 된 귀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사 생활을 마친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독신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보좌에 앉아계신 대심판자의 면전에서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나는 그를 매우 측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동료들에게 하는 변명, 곧 “너무 바빠서” “공부를 먼저 마쳐야지” 또는 “나에게 맞는 자매를 찾지 못했어”라는 따위의 변명은 주님에게 변명이 될 수 없으며 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 아내를 찾아 그녀와 결혼하여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는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성장하는 그들에게 풍족하고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의 임무라는 것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뒤로 미루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적과 관습에 관계없이 젊은이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을 하여 훌륭하고 유대가 강한 가족을 이루고 부양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자가 서로를 찾아 행복한 결혼 관계를 갖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언제나 깨끗하고 합당하게 자신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방법이 아니고도 그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또 그가 계획한 방법이 아닌 이른바 인큐베이터(아기를 넣어 기르는 병)로 인간의 육신을 만드는 따위의 방법으로 세상을 채울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으로 세상을 채우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위대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의로움과 순결을 가르쳐야 하며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미혼 상태로 보내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적당한 때가 되면 모든 젊은 남자는 그에게 가장 훌륭한 젊은 여자를 찾고, 젊은 여인은 그녀에게 가장 훌륭한 동반자가 될 젊은 남자를 찾을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결혼을 오래도록 뒤로 미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신전이 없지만 대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전들이 있습니다. 나의 청년 시절에는 성도들이 신전 결혼을 하기 위해 750킬로에서 1,200킬로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장래를 약속한 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전에 가서 영원히 서로 인봉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 자녀의 부모가 되는 이른바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신혼 여

행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돕게 하여 얼마씩 주는 돈으로 선교 사업과 결혼에 대비하도록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결혼식으로 얻는 자랑스러움과 호화로움을 희생하고 대개는 부모를 모시고 거룩한 신전에 가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결혼에 따르는 축하 연회나 휴일에 쓰는 비용 또는 값진 선물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신전 결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때가 많습니다. 킴블 자매와 내가 결혼할 때는 화려한 연회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만에 나는 아내에게 조그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훌륭하고 굳게 계속되는 결혼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표준을 세우고 또한 아름답고 보람에 찬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생이란 전적으로 즐기고 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대한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을 소년 소녀로 함께 사귀게 됩니다. 10대에 들어서도 여러분은 소년, 소녀로 예나 다름없이 평범하게 사귀어야 합니다. 최소한 16세 또는 지역의 관습에 따라 그 이상의 연령에 이를 때까지 데이트를 하거나 두사람만이 짝을 지어 다니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또 16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이르렀어도 깊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도 몇 년 동안을 더 남녀가 가까워지는데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남자는 19세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친해지는 때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성과 관계되는 어떤 접촉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형태의 성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년은 장래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복잡한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아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가 되어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 선교사는 이제 자유로이 자매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자매를 찾게 되면 합당한 신전 결혼을 해야 합니다. 훌륭히 자제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올바른 순서에 따라 하면 온갖 축복을 다 얻게 됩니다. 첫째 제한된 사교, 다음에 선교사 생활 그 다음에 구애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그 다음이 신전 결혼과 학교 수업 및 가정생활, 그 다음에 생업에 종사하는 순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틀리게 되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젊은 아내는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합니다. 젊은 아내가 자녀를 갖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남편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성구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젊은 부부는 각오만 한다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의 뜻을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성육이 오직 육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의 불행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정반대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성육은 영이 거할 육신을 낳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육구의 충족으로 인한 기쁨은 그에 따르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며 성이 육망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말일성도에게 필요한 성에 관한 이론은 다음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의 주 목적은 자녀를 낳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성의 만족은 이러

젊은 부부는  
각오만 한다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얻어야 한다’ 남편되시는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친절하고 아내를 잘 보살피 주십시오. 아내는 여러분의 소유물이나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대회 보고, 대회 신권회, 1949년 10월 194—195페이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누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

오직 해의 왕국의 결혼을 통해서만 끈고 좁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혼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나 주는 마지막 날에 우롱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63:58)

또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마 22:32)

율법에 따라, 유익을 위해, 축복을 위해, 은사의 영원한 본질을 위해 죽기로 선정된 자 이외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견해를 합리화하고 분석, 평가하며 발전시키고 스스로에게 해를 끼